

## 멜랑콜리와 우울증 사이에서

나는 (술을 마시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꾸만 생각나는 대화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던 밤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나누는 열렬한 대화는 생기를 준다. 팽팽한 논쟁 역시 좋다. 그러나 대화라는 게 귀찮게만 느껴질 때도 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이런 피로를 자주 느끼며 급기야 사는 게 팍팍해진다. 논쟁이라는 건 결국 서로 지적하거나, 밀치고 나가는 느낌만 남기는 거 아닐까. 논쟁의 종결이란 조용하게 경멸하기로 다짐하는 쪽의 일방적 맺음 아니던가. 그래서 논쟁이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변화를 모색한다기보다 훈계질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 아닐까. 게다가 속으로 이미 나를 포기하고 있는 상대와 논쟁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한때 나는 예술을 ‘가치 논쟁’의 문제로 여겼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풍부한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 (다원주의적 태도)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 생각이 굴절되면서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이 된 것 아닐까, 걱정이다.) 하지만 논쟁이란 말에서 ‘爭’이 ‘싸움’을 의미하듯, 논쟁의 본성은 ‘싸움’이다. ‘좋은’ 예술이 뭐고, ‘나쁜’ 예술이 뭔지 제대로 따져보겠다 다짐해 왔던 나, 돌이켜 보니 ‘싸움’에 취약한 인간이다. 논쟁 없는 미술이 취향만 남은 세계인 ‘패션’이랑 다를 게 뭐냐고 고개를 가로저었던 나, 알고 보니 ‘취향’의 덧없음에 편안함을 느낀다. ‘싸움’에 집중할수록 생각이 뻗뻗해진다는 점 역시 회의적인 생각을 자극한다. 이를테면, ‘논쟁’에 익숙해질 때 결과 한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해 나가는 행위를 여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과정이나 노력에 매정한 시선을 보내게 된다. 우왕좌왕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에도 기어코 결과나 영향에 대해 걱정하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결론은 이렇다. 논쟁이란 행위를 옹호하자니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반면, 논쟁에 대한 애정을 접어두자니 직면하게 될 ‘공허’가 두렵다. ‘논쟁’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일장일단으로 정리하고 보니, 막막하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겨룬다’는 성질로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한 개인이 경쟁, 투쟁, 논쟁에 참여해 ‘좋은’ 예술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어불성설이라는 것도. (여전히 다원주의적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작금의 미술은 폐쇄적 취향 공동체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가치 경쟁’이라는 것 역시

각자의 취향을 과시하는 일과 다름없어 보인다. ‘논쟁’이 없어서 미술이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활발한 ‘논쟁’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미술의 폐쇄적 경향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각의 좌표를 잃을 때, 환멸을 느낄 때, 정말이지 미술, 왜 하는 걸까 싶다.

예술 행위에 회의하는 사람들은 많다. 생각보다 많다. (이런 태도가 성격의 문제이거나, 치기 어린 고민이거나, 관둘 것도 아니면서 부리는 괜한 투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멜랑콜리와 우울증 사이라는 범주를 상정하고 단순한 생각을 시도해본다. 삶의 조건은 무의미다. 이 조건을 인정하기에, 예술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무의미를 긍정하는 예술(멜랑콜리) 과 부정하는 예술(우울증). 삶의 무의미를 (분위기 있게) 발라드 적으로 풀어내는 예술도 짜증 나지만, 어떤 대의, 혹은 어떤 진리에의 강박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메세지도 거부살스럽다. 그러나 나는 대체로 무의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다 생각한다.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것,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며, 버텨가고 있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sup>1</sup>

‘의미’ 타령은 마음을 심플하게 정리해 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그래서 외려 기운을 뺏어가기도 한다. 아직 미술의 미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의미’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의 무의미라는 게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혼자 유난을 떠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가치’ 타령이 자기 자신을 너무 팔팔하게 만든다면, ‘의미’ 타령이 허세 부리는 것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의미부여’가 잘되지 않는다는 고민은 어떨까. (자족적인 태도로 질문하는 것이 여러모로 호응을 얻는 것 같다.) 사람이 열심히 움직이고 신나게 살려면 의미부여라는 게 필요하다. 자신의 먹고 자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는 일차적 의미만 충족돼도 견딜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그런 일차적 의미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의미부여라는 갈등을 겪을 것이다. 무수한 의미부여들 사이의 틈을 탐색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려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자신의 일에 의미 부여할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쉽지는 않다. 지금은, ‘자기답게 사는 것’이 궁극의 명예이자, 그런 삶에 솔직한 태도만이 매력적인 시대다.<sup>2</sup>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부여’가 힘들다는 사람이 속출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미술을 왜 하고 있느냐고 자문하는 습관에 너무 예민해지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아 본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의미를 긍정하는 일인지, 부정하는 일인지 가늠해 보기로 한다. 무의미를 긍정하는 멜랑콜리적 인간이 파국을 욕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떠올려보자니, 아무리 생각해도 파국보다는 실패가 나은 것 같다. 그렇다면 우울증 환자를 자처하겠다. ‘균형감’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태도인지 잘 알고 있지만, 무의미에 압도될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을 생각해본다. 결국, 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들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에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하지만 이걸 나의 선택이자 지향일 뿐이다. 그러니 최악이라든가, 세상이 개판이라든가 하는 판단도 결국엔 내 생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무의미를 긍정하는 누군가에게 삶은, 세상이 개판이든 살판이든, 원래 허무한 것일 수 있다. 그것 역시 그 누군가의 판단이기에.

이쯤에서 멜랑콜리적 인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려 한다. 히피 이야기다. 우드스탁에 모였던 사람은 자그만치 45만 명이었다고 한다. (광역시 인구 절반인 셈이다.) 소들이 풀을 뜯어 먹는 목장에서 나흘 동안 떼거리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집단 섹스를 하고, 마약을 하고,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그 고약한 냄새가 굉장했다고 한다. (그들은 반전을 외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전쟁을 막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었다.) 나 같은 (우울증 환자를 자처한다고 했으니)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고야 만다. 그 고약한 냄새가 뭘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의미망에 넣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기도 하지만) 또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히피의 일원이었다는 것,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머리에 꽃을 달고 다녔던 흥분과 추억이 남긴 건 뭘까. 그 잔상이 뭘까. 그들의 축제가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뭘가 남기는 남았을 것 아닌가. 그게 쓰레기와 진흙탕과 배설물뿐이었을까.

60년대를 지나며 커밍아웃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히피 문화는 정념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성찰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요컨대 히피문화는 그 시대를 살았던 개인에게 해방감을 선사했다. (이런 측면에서 멜랑콜리적 인간이 부럽기도 하달까.) 하지만 히피는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일구어내지 못했다. 소수의 사람은 지금까지도 사랑, 자유로움, 평화를 지향하며 공동체를 일구며 산다. 물론 제도권으로 들어가 기성 권력이 된 경우가 많다.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고.) 이처럼 어떤 행위에는 의미와 무의미가 확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체험을 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존경할만한 윗세대가 되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꼰대가 되기도 한다. (우드스탁이 끝난 뒤에도 인생이 계속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무의미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현상을 더 추상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 멜랑콜리와 우울증 사이라는 분명한 폭으로 인해, 대가 없는 수많은 선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 분명하게 알겠다는 의지가, 쉽사리 희미해지고 마는 ‘의미 부여’의 과정을 자유롭게 한다. 하나 자기 기준만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어쩐지 좀 섬뜩한 면이 있으며, 우울증이 말기에는 멜랑콜리라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나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의미를 긍정하는 예술에 대해서도, 그 나름의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

지금까지 써 내려온 이 두서없는 이야기가, 지난 ‘땅뎀고 싸우기’ 토크에서 나눴던 내용의 프롤로그다. 사실 지난 토크에서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지향과

생활문화연대를 설명하기 바빴다. 예술이 처한 평범함과 궁색함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 그 평범함과 궁색함을 강박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sup>3</sup> 그날 나는 몹시 들떠 있었다. 아직도 얼얼한 기분이다. (나 스스로도 놀랄만큼 확신에 찬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생각 바뀌면 어찌려고 이러는지) 다시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차선의 발버둥이 아니라, 악마처럼 또는 미치광이처럼 행동해야만 겨우 벗어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박장준 기자와 함께 쓴 책 『땅뎛고 싸우기』는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기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한다와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 모두 배반해보고 싶었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실패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더 나은 실패라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1 황정은, 『계속해보겠습니다』, 창작과 비평, 2014

2 심보선, 『그을린 예술』, 민음사, 2013

3 심보선, 위의 책